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한모. 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병준. 바오로 217-352-2487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송돈희. 요셉 916-201-9859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 제1독서 | 창세기 15: 5-12, 17-18 | 제2독서 | 필리피 3: 17-4: 1 | 복음 | 루카 9: 28-36

◎말씀 < 그리스도는 이제 몸이 없습니다. >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타볼산 변모입니다. 희망의 나라를 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산위에 오르셨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루카 9,29)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옷을 입은 천상의 모습, 이 모습을 실제로 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제자,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했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왜 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이는 앞으로 다가올 시련의 시간에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곧 신앙의 희망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대 레오 교황님께서 “주님이 당신의 모습을 변모시키신 것은 제자들의 마음에서 십자가상 죽음으로 초래될 실망감을 없애 주고, 주님께 숨겨진 위엄의 탁월성을 드러냄으로써 자원하신 수난의 치욕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곧 제자들이 당신의 수난을 보게되고 또한 그들도 당신처럼 겪게 될 고통 가운데서 오늘의 모습을 기억하며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신앙의 여정에도 고통이 있다면 이 영광을 기억하며 역시 인내하고, 견디어 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변모를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헤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너희는 “어떠한 시련에도 희망을 가져라.”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영혼의 다과 같다.” (히브 6,9)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 품안에 내리는 닻입니다. 타볼산의 예수님 변모는 이제 우리 마음 안에 담겨 있기에 우리가 말하고 살고 선포해야 할 신앙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의 천국의 메시지가면서 또한 오늘 우리 삶을 향한 메시지가기도 합니다. 매일 매일 어떠한 경우에도 새로이 희망을 결심하며 나아가는 삶이 영원의 희망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이 때에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의 기도, ‘그리스도는 이제 몸이 없습니다.’ 곧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몸이 되자는 마음을 담은 기도를 기도와 삶으로 바칩시다. 그리하여 예수님과 하나되어 예수님께서 부활과 승천으로 오르신 그곳에 우리 희망의 닻을 내릴수 있는 길을 걸어갑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몸이 없습니다. 당신의 몸밖에는 그분께서는 손도발도 없습니다. 당신의 손과 발밖에는 그분께서는 당신의 눈을 통하여 이 세상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당신의 발로 세상을 다니시며 선을 행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손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아멘.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3월 19일(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요셉 대축일	오후 7시 30분	교 무 금 주일헌금	\$ 2,600.00 \$ 966.00
3월 20일(수)	사순 제2주간 수요일	오전 7시 30분	미사예물 성소후원	\$ 350.00 \$ 49.00
3월 21일(목)	사순 제2주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사회복지 성 물 방	\$ 39.00 \$ 32.00
3월 22일(금)	사순 제2주간 금요일	오후 7시 30분	기타수입 사제관건축	\$ 1,000.00 \$ 0.00
3월 23일(토)	사순 제2주간 토요일	오후 7시 30분	합 계	\$ 5,036.00
3월 24일(일)	사순 제3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아동: 21명 성인: 137명
교무금 봉헌자	강석만. 박현철(1-6월) 김은수(3-4월) 장영수(1-4월) 김진태. 고원석(1-3월) 이은로(1-2월) 이명숙(11-12월) 이민석(1월) 안기창(2월) 최중구. 김선식. 금외주. 김재홍. 성영진. 박병수. 지복원. 이상기. 황호민. 지영욱. 김영숙(3월)			

◎신앙생활(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집.동네의 샘입니다)

사순시기를 맞이한 교황님 담화

“어려운 이웃에게 영적 물질 재화를 나눕시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올해 사순시기를 맞이하여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 하셨습니다. 이 담화에서 교황은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의 삶안에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변모의 힘을 피조물들에게도 전하자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자아도취를 뒤로하고 예수님의 파스카를 향해 돌아섭시다. 어려운 우리 형제 자매들의 이웃이 되어 우리의 영적, 물질 재화를 그들과 함께 나눕시다."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순담화의 핵심입니다. 교황께서는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8, 19]라는 로마서의 한 구절을 담화의 제목으로 발표하셨습니다.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참회와 회개, 용서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희망을 모든 피조물에게 전하자는 당부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피조물인 하느님의 자녀로써 피조물의 선행에 이바지하면서 피조물의 구원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신비는 우리의 지상 삶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와 모든 피조물도 아우르는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설명 하셨습니다.

교황께서는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고 이웃과 피조물을 향해 파괴적인 행동을 일삼는 것은 죄라고 지적 하셨습니다.

교황은 모든 신자들에게 개인과 가정생활에서 단식과 기도, 자선을 통해 파스카의 신비를 더욱 깊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드러내길 요청하셨습니다.

단식은 타인과 모든 피조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단식은 우리의 탐욕을 채우려고 모든 것을 집어 삼키려는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어 기도는 이상숭배와 자만을 버리는 것이며, 자선은 우리가 관장할수 없는 미래를 스스로 보장할수 있다는 헛된 믿음으로 자기만을 위해 살고, 모든것을 축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교황은 단식과 기도 자선을 통해 피조물과 우리 각자를 위해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계획의 기쁨을 되찾자고 거듭 강조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계획은 참 행복의 유일한 원천인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덧붙이셨 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엠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서향자.글라라/김초지.마리아/황순이.마리아 최이주.베아따/이규청.제노비아/엠모니카 신용경.그레고리오/배미성.오틸리아/이강덕시몬 박모란.글라라/김광진.요한/원헤리나.헬레나 고공자.벨라뎃다

◎기도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율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 향	봉 헌 자	구분	지 향	봉 헌 자
연	이순애.엘리사벳의 영혼	박원상.토마스	연	김기수.안드레아의 영혼	김일주.안나
연	이명호.안셀모의 영혼	가족	연	모든 연령을 위하여	연령회
연	한오임.소피아의 영혼	김일주.안나			

간
장
중
지

●북쪽●
북쪽이 햇님에게 불평하였다.
“왜 나는 매일 이렇게 어둡고 추워야 할까요? 남쪽은 저렇게 밝고 따뜻하고 환한데...”
” 늘 따뜻하기만 하면 따뜻함의 고마움을 모른다. 늘 밝기만 하면 밝음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햇님이 말했다.
강은교 클라라.시인

(광고) 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1.2.3 Auto Body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2019년 8월 25일 출발 요르단+이스라엘 성지순례  SHINSEGAE TRAVEL ☎ 510-688-0155</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cell</p>	<p>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SNOW WHITE DENTAL 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 2335 American River Dr. Ste.100 Sacramento, CA 95825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JIMMY KIM GOLF SCHOOL ~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916)605-6974</p>	<p>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장 의사 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